기조연설 I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우선, 제주포럼의 주최 측과 공동주최 측 여러분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세션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시아의 역할,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겠지만 저는 그중 단 한 분야, 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아시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일부 지역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자그마한 땅덩어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반대주장 때문입니다. 대립의 가능성, 나아가 전쟁의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국 영토를 손톱만큼이라도 점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쟁의 범죄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태곳적부터 우리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범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영토를 둘러싼 전쟁과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활과 화살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보통은 상대방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나라 전체가 말려듭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임 당합니다. 비전투원이 죽임 당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병자, 빈자, 장애인 등 모두가 부수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모두 죽임 당합니다.

우리는 살상무기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3만 기 이상의 핵탄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주포럼결과자료집2013_-0904.indd 21 2013-09-12 오후 2:11:55

있습니다. 만약 이 3만 기의 핵탄두가 발사된다면, 전 인류가 말살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의 숭례문을 불태운 광인이 있었듯이, 만약 어느 광인이 버튼을 눌러 핵전쟁을 시작하고, 공격당한 국가들이 그대로 되갚는다면, 우리는 핵전쟁을 맞게 되고 전 인류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아주 원시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단에 기대야 합니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웃한 모든 나라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외 여러 나라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협상을 통해 영유권 주장이 엇갈리던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던 바다와 그 바다의 자원 개발권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간의 대결 양상을 종식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아름다운 두 섬, 리기탄(Ligitan) 섬과 시파단(Sipadan) 섬을 놓고 영유권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결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섬이 말레이시아의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썩 유쾌한 판결은 아니었겠지만, 법정에서는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것입니다.

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바다에는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등대가 서 있는 작은 바위일 뿐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기 이 바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협상하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국제사법재판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물론 부당하지만, 이 바위가 싱가포르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어딘가에 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나라가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준비, 방어준비, 공격준비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 달러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고조됩니다.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조된 긴장과 전쟁준비로 이미 각 국가들에서 우려할 만한

제주포럼결과자료집2013_-0904.indd 22 2013-09-12 오후 2:11:55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차라리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며, 이미 발명된 온갖 대량살상무기를 개량하느라 수조 달러를 쓰는 것은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인간 자원의 낭비입니다. 21세기, 그리고 이 2013년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협상이나 중재, 재판을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싶다면 전쟁을 범죄, 곧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그런 나라들에 등을 돌리고, 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다른 범죄자들이 재판받는 방식과 같게 재판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노예제도를 수용했던 때를 떠올려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예가 있었고,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도 노예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소유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금지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무역 근절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노예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주포럼에서 전쟁의 범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모든 분쟁을 협상과 중재와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쟁의 범죄화에 관해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주 부유해질 것입니다. 무기에 쓰이는 돈이 인류의 복지에 쓰이게 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제주포럼결과자료집2013_-0904.indd 23 2013-09-12 오후 2:11:55